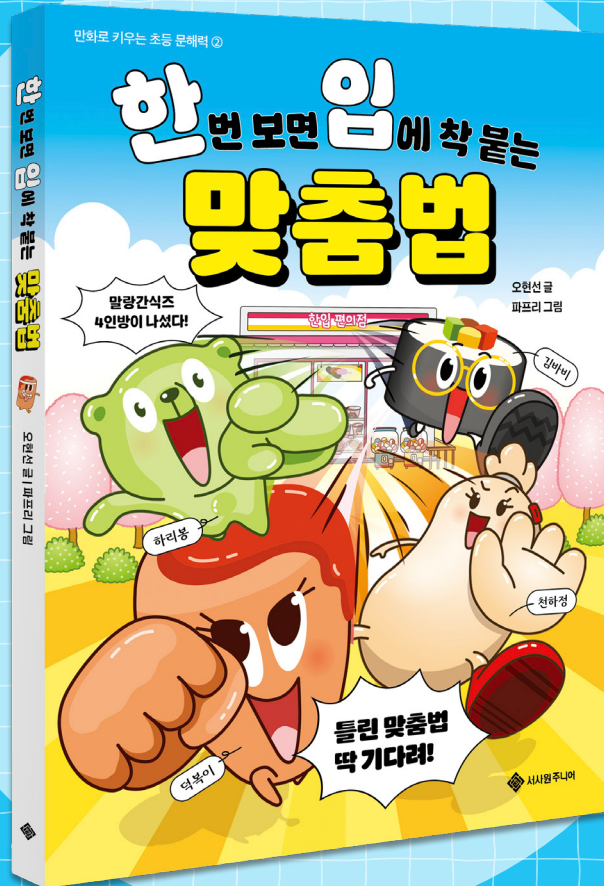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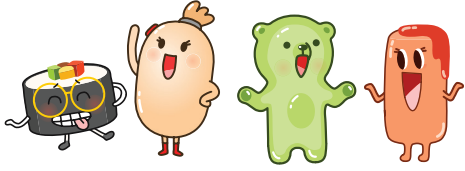
# 독후활동지



\_\_\_\_\_학년

\_\_\_\_\_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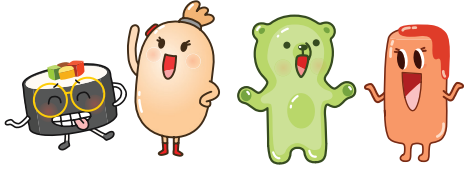
\_\_\_\_\_이름



## 맞춤법 퀴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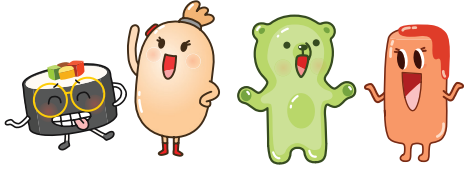
\* 정답은 '한입 맞춤법' 책에서 확인하세요!

- 그 친구를 본 지도 벌써 **(며칠/몇칠)**이 지났다.
- 어제 일어난 일은 정말 **(어이없다/어의없다)**는 생각이 든다.
-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, “절대 **(않 돼/안 돼)**.”라고 말해야 한다.
- 길을 걷던 중 **(갑자기/갑작이)** 소나기가 쏟아졌다.
- 이번 행사는 **(2틀/이틀)**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.
- **(굳이/구지)**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.
- 그건 **(원래/월래)** 내 계획에 없던 일이다.
- 그 아이는 **(곰곰히/곰곰이)**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.
- 통로가 **(널찍한/넙직한)**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다.
- 약속 시간에 **(느지막히/느즈막히)** 도착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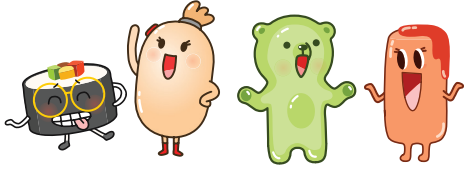
## 맞춤법 퀴즈

- 길가에 떨어진 **(돌맹이/돌맹이)**를 발로 찼다.
- **(웬지/웬지)**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.
- 점심으로 매콤한 **(덥밥/덥밥)**을 먹었다.
- **(일부러/일부로)**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.
- 생일 선물로 예쁜 **(귀걸이/귀거리)**를 받았다.
-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**(주워/주어)** 주머니에 넣었다.
- **(검정색/검은색)** 구두가 정장에 잘 어울린다.
- 과제 양이 **(얼마큼/얼만큼)** 되는지 확인했다.
- 그는 시험을 앞두고 **(안절부절못하는/안절부절하는)** 모습을 보였다.
- **(나의/나에)** 소중한 보물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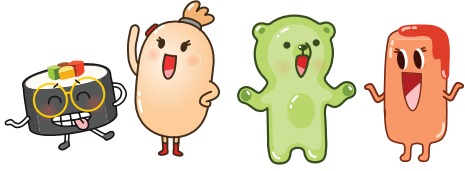
## 맞춤법 퀴즈

- 큰 사고가 나서 건물이 (폭발/폭팔)했다.
- 그 분야에서 (내노라하는/내로라하는) 전문가가 모였다.
- 부탁이니 이런 일은 (삼가 줘/삼가해 줘).
- 일은 (금새/금세) 끝날 것이다.
- 팀에서 중요한 (역활/역할)을 맡았다.
- 반찬으로 맛있는 (소시지/소세지)를 준비했다.
- 생일 파티를 위해 (케이크/케익)를 샀다.
- 갈증이 나서 (주스/쥬스)를 마셨다.
- 방을 (깨끗이/깨끗히) 청소했다.
- 저녁 메뉴로 김치 (찌게/찌개)를 끓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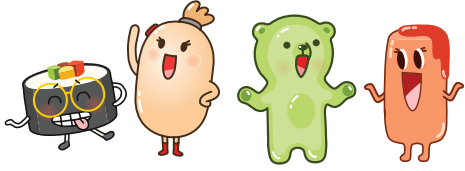
## 맞춤법 퀴즈

- 사업에 실패하여 (빈털터리/빈털털이)가 되었다.
- 친구들 앞에서 (창피/챙피)를 당했다.
- 잠자리에 들어 (베개/배게)를 베고 누웠다.
- 사과 껍질을 (깎다가/깎다가) 손을 다쳤다.
- 광경이 정말 (희한하다/희안하다).
- 내일 다시 (할게/할께).
- 집 (안팎/안밖)으로 수리를 했다.
- 문을 (잠귀/잠가) 놓고 나갔다.
- (하마터면/하마트면) 넘어질 뻔했다.
- 하늘에 (해님/햇님)이 밝게 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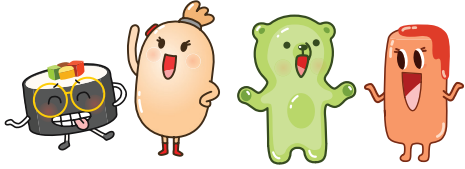
## 맞춤법 퀴즈

- 조개 (껍데기/껍질)를 바닷가에 버렸다.
- 약속은 (반드시/반듯이) 지켜야 한다.
- 꿈을 (쫓다/좃다) 보면 현실이 멀어질 때가 있다.
- 담장 (너머/넘어)로 꽃이 보였다.
- 고집쟁이보다는 멋쟁이가 (장이/쟁이) 중에서 너에게 어울린다.
-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는 (이/이빨)라고 부르는 게 맞다.
- 물건을 (잃어버려서/잊어버려서) 속이 상했다.
- 머리를 (빗어/빚어) 단정하게 정리했다.
-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(짚는/짚는) 소리를 냈다.
- 다리가 (저려/절여) 잠시 앓아 있었다.



## 맞춤법 퀴즈

- 밭에 (거름/걸음)을 주니 작물이 잘 자란다.
- 사랑하는 사람을 (여의는/여위는) 슬픔은 컸다.
- 잔치를 (벌여/벌려) 손님을 초대했다.
- 봄꽃이 (한창/한참) 피어 있다.
- 물건을 (갇다/같다) 두는 위치를 정했다.
- 우리가 갔던 (대/데)가 사라졌더라.
- 감기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(낮다/낱다).
- 집에 오는 길에 잠시 서점에 (들르기로/들리기로) 했다.
- 아이를 등에 (업는/엮는) 것은 부모의 사랑이다.
- 문이 굳게 (닫혀/다쳐)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.



## 맞춤법 퀴즈

-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(가르쳤다/가리켰다).
- 신발 끈을 단단히 (매고/메고) 운동장에 나갔다.
- 정답을 (맞히니/맞추니) 기분이 아주 좋았다.
- 고무줄을 길게 (늘여/늘려) 장난을 쳤다.
- 약을 (달이며/다리며) 정성을 다했다.
- 편지를 (부치러/붙이러) 우체국에 갔다.
- 우리 둘의 의견은 늘 (다르다/틀리다).
- 너 도대체 (어떻게/어떡해) 하려고 그러니?
- 정성을 (들여/드려) 물건을 만들었다.
- 나물을 맛있게 (무쳐/묻혀) 상에 올렸다.